

<외계인 인터뷰> ‘Alien Interview’, 로렌스 R. 스펜서

자료의 출처에 대하여

- “이 책은 파일럿이자 엔지니어인 외계 우주선 장교 ‘에어럴 (1947년 7월 6일 뉴멕시코주 로스웰 근처에서 추락한 UFO에서 생존)’ 과 고 마틸다 오도넬 맥엘로이 미 공군 간호장교 간의 인터뷰가 있는 지 60년 후에 나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정보이다.”

맥 엘로이 여사의 첫 번째 편지

안녕하세요.

퇴역하고 구입했던 오래된 내 언더우드 타자기로 당신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봉투에서 당신이 꺼내 들 문서들과 이 편지의 주제와 어쩐지 대조되는 것 같군요.

내가 당신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은 약 8년 전이었습니다. 짧은 전화통화로 당신은 내가 지구 역사에 영향을 미쳤을 지도 모르는 외계인에 관해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당시 쓰고 있던 책 ‘The Oz Factor’ 의 취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내게 요청했지요. 전화통화로 나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후 나는 당신 책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고 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 경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분명해졌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강한 권력은 강한 책임감을 동반한다” 라고 당신이 언급했던 옛 철학자의 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내 삶이 권력과 상관있는 삶은 아니지만 또한 그 때문에 당신에게 이 문서를 보내는 것도 아니지만 당신은 분명히 나로 하여금 내 책임감에 대해 생각하게끔 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입장에 대해 재고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나 자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1947년 이후 윤리적으로 우유부단하고 상반된 감정의 소용돌이로 받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생활을 견뎌왔습니다. 남은 영원의 시간을 내내 이 ‘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게임을 계속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회에 알려지지 않도록 내가 도왔던 그 지식의 노출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습니다. 제가 60년 동안 힘들게 지켜온 비밀을 보거나 들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긴 세월 내내 지적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외계 생명체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공격적이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침해한다는 특정 지식을, 인류를 ‘보호’ 한다는 명목 하에 권력이 크게 오도하고 있는 것을 빈번히 알아차리면서도 나는 정부 내부의 실세들에 의해 내가 비밀 유지를 위한 중대한 거래를 떠맡아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바 이제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비밀 지식을 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아볼 수도 닿을 수도 없는 침묵의 저 세상으로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가는 것은 책임 이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국가 최고 기밀’ 이라는 명목 하에 ‘기득권자들’ 을 보호하기 보다는 공익을 위해 밝히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제 내 나이 83살입니다. 고통 없는 안락사로 이제 더 이상 쓸모없어진 이 몸을 나는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밖에 살 수 없어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앓을 것도 없습니다. 해서 나는 남편과 내 삶의 대부분을 보냈던 몬타나 주를 떠나 남편의 고향인 아일랜드 미스 카운티에 있는 아름다운 집 2층에 세를 얻어 이사했습니다.

나는 노스 유적지인 ‘대분묘’와 다우스 유적지 ‘선사 시대 거석 유적지’에서 그리 멀리 않은 곳에서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이 유적지는 피라미드와 기이한 석조 건축물들이 전 세계 곳곳에 세워졌던 시기와 같은 시기인 기원전 3,700년에 건립되었다고 해독 불가한 상형문자가 새겨진 신성한 ‘석실 고분’과 거대한 석조 건축물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선사와 역사 시대에 걸쳐 치세했다고 알려진 왕이 142명이나 되는 아일랜드 고대 권력의 중심지 ‘타라의 언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고대 아일랜드 종교와 신화에서는 이 곳이 ‘신들’이 거주했던 곳이고 ‘다른 세상’으로 가는 입구였다고 전합니다. 아일랜드 수호 성인인 성 패트릭이 고대 이교도인들을 무찌르기 위해 타라로 왔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읽으면 알겠지만 그는 이 지역의 종교 활동을 억압했을지는 모르나 지구에 문명을 일으킨 ‘신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스럽지 못한 세상을 떠나고 마침내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에 이 장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지요.

늦었지만 이 우주와 우리 은하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남도록 돕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정보기관이 보여주는 작금의 태도는 그런 내용의 지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상 무지와 비밀 유지가 보호하는 것은 단 하나, 다른 사람들을 구속하는 권력으로 그들의 사적인 의도를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미신과 어리석음이 퍼져나가고 이를 이용해 그들은 인지되는 모든 적과 아군들의 무장을 해제시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도 숨겨왔던 이 일에 대한 나의 고찰과 사적인 기록의 원본과 유일하게 존재하는 사본을 보냅니다. 그리고 속기사가 매번 외계인 파일럿과 인터뷰가 끝나면 그 내용을 타자로 쳤는데 그 필기본들도 함께 보냅니다. 인터뷰 공문서 사본을 지금까지 내가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제 나는 이 모든 문서들을 당신에게 주고 적절한 방법으로 세상에 알리도록 하는 일을 당신에게 위임하려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생명과 안전에 아무런 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이 정보를 세상에 알리십시오. 저의 경험이 담긴 이 자료를 소셜 같은 허구의 형태로 출판하면 심층조사나 정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 방어막으로 ‘국가 안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기관이, 문제의 사실 여부에 신경 쓰지도 않을 거며 그들의 의심으로부터도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실에 관한 어떤 정보도 부인할 수 있고 이 자료들은 상상에서 나온 허구의 작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구보다 더 허구 같은 진실’을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아주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것들이겠지요. 안타깝게도 믿음은 신뢰할 수 있는 현실의 기준이 아닙니다.

또한 자유보다는 물리적 경제적 영적으로 노예인 상태를 더 선호하는 이들에게 당신이 이 기록들을 보여준다면 기록이 담고 있는 주제를 상당히 불쾌한 것으로 여길 것이 뻔합니다. 당신이 만약 TV 저녁 뉴스나 신문에 사실에 입각한 것으로 이 자료를 보도하게 되면 그들은 즉시 정신 나간 사람의 헛소리라고 외면해 버릴 것입니다.

이 자료들의 속성 자체가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고 또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지

요. 거꾸로 말하면 이 정보를 공개하면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특권층에게 엄청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 자료는 외계인을 만난 사람이나 초자연적 현상의 경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당신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The Oz Factors’ 에서 당신이 했던 비유로 말해보면 다른 이들이 쓴 ‘외계인’의 영향력에 대한 몇 안 되는 사실적 보고서들은, 맹세코 지구 전체를 뒤덮고 소용돌이치는 예언적 태풍의 눈, 그 속에 부는 조용한 산들바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마법사도 있고 사악한 마녀도 있고 그리고 날아다니는 원숭이들도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그리고/혹은 추측했던 이 정보를 주요 언론은 물론 학계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퇴임 연설에서 우리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했던 군산 복합체는 끊임없이 부인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1947년 7월 로스웰 공군 기지(RAAF)가 509 포격 사단 대원들이 뉴멕시코 로스웰 인근 한 농장에 추락한 ‘비행 접시’를 발견했다고 언론에 공식 발표를 해 매스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같은 날 미 공군 8사단장은 처음 잔해를 발견했던 수색 대원 중 한 사람이었던 제시 마셀 소령이 발견한 것은 비행접시가 아니라 기상 관측용 기구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이었다고 수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의 명확한 진실을 숨겨왔습니다. 내가 미 공군 여사단(WAC) 소속 의무부대 간호 상사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을 당신은 모를지도 모르겠네요. 사건 당시 나는 509 포격 사단의 비행 간호 장교로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추락 소식이 기지에 전해지자 나는 특수 정보 장교 캐빗씨의 운전병으로 그와 동행해 추락 현장으로 갔고 어떤 생존자건 응급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잠시나마 추락한 비행접시의 잔해뿐 아니라 비행접시에 타고 있었던 이 미 사망한 외계인 조종사들의 시체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후략)

2007월 8월 12일

미 공군 의무부대 전역 상사

마틸다 오도넬 맥엘로이

아일랜드 미스카운티 나반 트로이타운 하이츠 100호

p.51 첫 번째 인터뷰

마틸다 오도넬 맥엘로이 여사의 개인적인 메모

외계인과 본부로 돌아 왔을 때 나는 이미 그녀와 몇 시간을 보낸 후였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녀와 소통이 되는 사람은 우리 중 내가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캐빗씨는 나에게 외계인과 함께 있으라고 말했지요. 나는 외계의 존재와 ‘소통’ 하는 내 능력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태껏 어느 누구와도 텔레파시로 소통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내가 경험한 발화(發話)없이 하는 대화라는 것은 어린 아이나 강아지가 당신에게 뭔가를 이해시키려고 할 때 드는 느낌과 비슷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했습니다. 비록 발화되는 ‘단어’ 나 기존에 사용하던 기호는 없지만 그 생각의 의도는 나

에게 어김없이 전달되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생각을 받기는 했지만 반드시 그 의미를 정확히 해석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속한 ‘부대’ 나 조직이 요구하는 보안과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장교이자 파일럿이라는 그녀의 직급 성격상,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화를 나눌 의자가 없어 보였습니다. 임무 수행 중 ‘적군’에게 생포 당한 모든 군인은 심문이나 고문을 당하더라도 목숨과도 같은 정보를 발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책무임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데, 그러면서도 에어럴이 정말로 나에게 무언가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항상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지 그런 느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할 때 그녀는 나에게 진지하고 정직하려 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당신은 모르실 테지요. 또 외계의 존재와 나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다는 뚜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환자나 어린 아이에게 느끼는 ‘신뢰’나 공감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진심으로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해를 끼칠 의도가 전혀 없으며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녀에게 딱 칠 어떤 위험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가 알아서라 생각합니다.

나는 외계인을 ‘그녀’라고 부릅니다. 그 존재는 생리학적이든 심리학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사실상 성적 구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태도나 행동 면에서 여성성이 더 강했지요. 생리학적 관점에서 그 존재는 분명 ‘무성(無性)’이었고 체내 체외 어디에도 생식기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인형’ 혹은 ‘로봇’에 더 가까웠습니다. 몸이 생리학적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체내에 ‘장기’는 없었고, 몸 전체에 흐르는 일종의 ‘회로’ 체계 혹은 전기 신경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외견상으로 본 그녀의 몸은 작고 말랐으며 신장이 1미터 정도였습니다. 가느다란 몸통과 팔 다리에 비해 균형에 맞지 않게 머리가 컸습니다. 두 개의 ‘손’과 ‘발’에는 물건을 잡기에 적합한 세 개의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기능을 갖춘 ‘코’나 ‘입’ ‘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우주에는 소리를 전달하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우주선 조종사는 그런 기관이 필요 없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소리를 담당하는 감각 기관이 없고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없어 입도 없었습니다.

눈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녀의 두 눈이 가진 시각의 예리함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시각적 감각이 매우 날카롭다는 것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어둡고 불투명한 수정체가 가시광선 너머의 파동이나 입자들을 감지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는 전자기장 스펙트럼의 전체 범위 혹은 그 이상을 포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그 존재가 나를 바라볼 때는 마치 ‘투시력’을 사용하는 듯, 시선이 곧장 나를 관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그 시선은 나를 약간 불편하게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내가 여자거나 남자라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는 것 같지만 말이지요. 그 존재와 같이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몸은 산소나 물, 음식물, 기타 외부의 영양소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에어럴은 몸을 살아서 기능하게 하는 그녀만의 ‘에너지’를 스스로 공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조금 이상하고 꺼림칙한 기분을 낳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녀의 몸은 우리 몸에 비하면 정말 너무 너무 단순했습니다.

에어럴은 자신의 몸이 로봇처럼 기계적이지도 않고 생물학적이지도 않다고 내게 설명했습니다. 몸은 영적 존재인 그녀에 의해서만 살아 움직였습니다. 의학적 관점으로는 에어럴의 몸

이 ‘살아 있다’ 라고조차 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녀의 ‘인형’ 같은 몸은 세포나 그 외의 것들로 구성된 생물학적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녀의 피부는 부드러웠고 색깔은 회색이었습니다. 몸은 기온이나 기상 조건, 기압의 변화에 고도의 적응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육조직이 없는 팔다리는 상당히 허약했습니다.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야 아주 약소한 근육의 힘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었지요. 그녀의 몸은 거의 전적으로 우주선 안에서 혹은 중력이 낮거나 아예 없는 환경에서만 사용했습니다. 무거운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에 와서는 걷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는 잘 걸어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과 발은 상당히 유연하면서도 날렵했습니다. 외계인과 첫 인터뷰를 하기 전에 본부의 이 구역은 하룻밤 사이에 웅덩이는 별집마냥 민활하게 움직이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12명의 남자들이 조명과 카메라를 설치하느라 분주했지요. 영화 촬영용 카메라와 녹음기, 마이크도 ‘인터뷰 룸’에 설치되었습니다. (나는 외계인이 말로 소통하는 게 아닌데 왜 마이크가 필요한 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속기사와 타자기로 분주히 타자를 치는 네댓 명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와 외계인과의 소통을 돕기 위해 외국어 통역 전문가와 ‘암호 해독’ 팀이 밤사이 날아와 합류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외계인을 검사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몇 명의 의료진도 와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질문 작성과 답변 ‘해석’을 도울 심리학 교수 한 사람이 있었지요. 간호사라는 이유로, 내가 외계인이 하는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적격한’ 통역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외계인과 나는 이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내 메모에서 이를 확인하겠지만, 매 인터뷰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급격히 높여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음은 인터뷰가 끝나는 대로 내가 곧장 속기사에게 보고한 내용을 기초로 정보 장교가 만들어서 내게 준 질문 목록에 대한 답변들의 첫 번째 필기본입니다.

p.55 공식 인터뷰 필기본

극비 사항

미 공군 공식 필기본

로스웰 공군 기지 509 포격 사단

주제: 외계인 인터뷰 1947년 7월 9일

질문: “당신은 부상을 입었는가?”

대답: 아니다.

질문: “당신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가?”

대답: 필요 없다.

질문: “음식이나 물 혹은 다른 뭔가 필요한 게 있는가?”

대답: 필요 없다

질문: “기온이나 대기의 화학적 성분, 기압 혹은 오물 처리와 같은 특정한 환경적인 요구 사항이 있는가?”

대답: 없다. 나는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다.

질문: “당신 몸이나 우주선은 인간이나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에 해가 될 만한 세균이나 오염 물질을 옮기는가?”

대답: 우주에는 세균이 없다.

질문: “당신 정부는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을 아는가?”

대답: 현재로서는 아니다

질문: “당신이 속한 종족이 당신을 구하러 오겠는가?”

대답: 그렇다

질문: “당신들이 사용하는 무기의 성능은 어떠한가?”

대답: 아주 파괴적이다

나는 그들의 군대나 무기가 어떤 종류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대답에서 내가 느낀 것은 단순히 사실을 말한 것이지 위협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질문: “당신 우주선은 왜 추락했는가?”

대답: 대기 중에 일어난 전기 방전의 충격으로 비행 통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질문: “이 지역에서 비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답: 불타는 구름/방사능/폭발을 조사하러 왔다

질문: “당신 우주선은 어떤 방식으로 비행하는가?”

대답: ‘마음(MIND)’으로 통제한다, ‘생각 명령’에 반응한다

‘마음(MIND)’ 혹은 ‘생각 명령’이란 표현은, 외계인의 생각을 묘사하기 위해 내가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영어 단어였습니다. 그들의 몸과 우주선은 그들이 하는 생각으로 통제하는 일종의 전기적 ‘신경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질문: “당신들은 의사 소통을 어떻게 하는가?”

대답: 마음/생각을 통해서 한다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합친 말이 그 당시 외계인이 전달한 아이디어를 묘사하기에 가장 적합한 영어 표현이었습니다. 그녀가 나와 소통하듯이 그들은 마음으로 직접 소통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질문: “당신은 의사 소통을 할 때 문자나 기호를 사용하는가?”

대답: 그렇다

질문: “당신은 어느 행성에서 왔는가?”

대답: 집/도메인의 고향(THE HOME / BIRTHPLACE WORLD OF THE DOMAIN)

나는 천문학자가 아니어서 별들, 은하수, 별자리와 우주에서의 방향 같은 관점에서는 생각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집’이나 ‘고향’은 은하계의 거대한 성단 중심에 있는 행성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메인’이라는 말은 그녀가 온 곳에 대한 그녀의 개념이나 이미지, 생각을 바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표현 중 가장 근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쉽게 ‘영토’나 ‘왕국’이라 할 수도 있었습지만 나는 그것이 단순히 행성 혹은 태양계나 성단이 아니라 엄청난 수의 은하계라고 확신했습니다.

질문: “당신 정부는 우리측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대표단을 보낼 것인가?”

대답: 아니다

질문: “지구와 관련하여 당신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대답: 도메인의 재산을 보호 유지한다

질문: “지구의 정부와 군사 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답: 형편없다/작다, 행성을 파괴한다

질문: “당신들의 존재를 왜 지구인들에게 알리지 않는가?”

대답: 지켜본다/관찰한다, 접촉하지 않는다

지구인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 그 인상은 분명했지만 소통했던 단어나 아이디어를 생각으로 풀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그저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질문: “당신들은 이전에 지구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

대답: 주기적/반복적 관찰

질문: “지구에 대해 얼마나 오래 알고 있었는가?”

대답: 인간이 존재하기 오래 전부터

‘선사(先史)’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 나타나기 훨씬 오래 전의 시기임은 분명했습니다.

질문: “지구 문명의 역사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대답: 거의 흥미/관심 없음, 중요하지 않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애매했지만 그녀가 지구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혹...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당신 고향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 줄 수 있는가?”

대답: 문명/문화/역사가 있는 곳, 거대한 행성, 항상 풍부한 부/자원, 질서, 힘, 지식/지혜, 두 개의 별, 세 개의 달

질문: “당신 문명은 어느 정도 발달해 있는가?”

대답: 고대, 수 조년, 항상, 다른 무엇보다도, 계획, 일정, 발전, 승리, 높은 목표/아이디어

10억이 여러 개 있는 것보다 더 큰 수를 의미하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나는 ‘조(兆)’라는 수를 썼습니다. 그녀가 말한 시간의 길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벅찼습니다. 지구 시간의 개념으로 따져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것이었지요.

질문: “신을 믿는가?”

대답: 우리는 생각한다, 그것이다, 지속시킨다, 항상 (**원문: “그렇다”)

외계 존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나 ‘숭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녀가 속한 문명의 사람들은 모두 무신론자일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고 자부심이 무척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질문: “당신들은 어떤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대답: 질서, 힘, 항상 미래, 통제, 성장

이런 단어들이 그녀의 사회와 문명에 대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그녀의 ‘감정’은 매우 격앙되었고 기쁨으로 밝아졌으며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내게 전달했던 기쁨과 희열의 감정으로 딱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나를 무척 불안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질문: “우주에 당신들 외에 지적 생명체가 또 존재하는가?”

대답: 모든 곳에 다 있다 (후략)

[기타 첨부 자료]

<https://youtu.be/Cx00x8nGdmk> “난 외계인들과 같이 일했다”

https://youtu.be/Rmja_6O_9OE “지구 안에 또 다른 핵 있다”

<https://youtu.be/BQUMCN0UqfM> “별들의 크기 비교”